

#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들병이’에 대한 일 고찰

김 종 호\*

## < 목 차 >

- I. 머리말
- II. ‘들병이’의 형성배경과 작가의 현실인식
- III. 궁핍의 극한과 해학적 승화
- IV. 작가의 현실대응과 ‘들병이’의 위상
- V. 맺음말

### <Abstract>

A Study of 'Deul-Byoung-E' implicit in the Kim,  
Yu-Jeong's Novel

Kim, Jong-Ho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aspects of Deul-Byoung-E in relation to its formative background and humor, and actual confrontation of author implicit in Kim, Yu-Jeong's Novel.

Deul-Byoung-E was one of prevalent phenomenon in farming villages in 1930s, and it implies the consciousness of lower classes and the author.

Humor is the heart of Kim, Yu-Jeong's literary style as well as the distinctive feature of his Novel. In his novel, poverty in farming villages was sublimated naturally into laughing matter in the form of humor, but not desperation. And, characters in his novel appear to be actual figures as

---

\* 상지대학교 겸임교수

in his reality.

Kim, Yu-Jeong approached intrinsic attribute of life through poverty characterized by Deul-Byoung-E. Deul-Byoung-E represents strong tenacity for life of lower classes during Japanese colonization in 1930s.

The connotation of Kim, Yu-Jeong novel can be perceived through the direct relationships between Deul-Byoung-E's life and the author's view of real life.

And, the aspects of Deul-Byoung-E can be appreciated extensively and positively.

## I. 머리말

김유정의 소설은 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절대 궁핍화된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하층민들의 생활상을 해학과 유머, 육담과 사투리를 동반한 토속성을 통해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 하층민들의 생활상은 형언키 어려운 현실과의 대면속에서도 끈질기게 삶의 현장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체적으로 김유정의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의 유형을 통해 검토된 해학성과 유머 등은 김유정 소설의 특징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연구자들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인물들의 특징에 대한 이견이 있고, 이에 따라 김유정에 대한 평가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김유정에 대한 결과들은 역사의식이나 사회의식과의 관련 양상을 살피는 경우와 소설 미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들로 대별할 수 있다.

소설 속에 나타난 작가의 역사의식의 유무를 분석하는 경향은 작가의 관점과 관련하여 사실주의적 특징을 해명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김유정 소설의 미학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해학과 풍자, 토속성, 문체론적인 특성을 해명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들병이’에 대한 논의는 김유정의 당대 현실인식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소설 특징을 살펴 봄으로써 해학성

의 근간을 해명하고, 작가의 현실인식과 관련하여 ‘들병이’의 위상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는 김유정의 사회의식을 통해 드러나는 소설미학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김유정 소설의 특징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인물과 관련된 논의들은 김유정 문학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해학성과 희화적 요인을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유정 소설의 대표적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해학성이 작가의 단순한 언어적 감각이나 전원적이고 낭만적 취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 배경을 이루는 요인들이 작품에 내재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sup>1)</sup>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들병이’에 대한 인물 연구는 당대 농촌의 현실을 첨예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김유정의 소설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관계없이 매춘의 문제가 등장한다. 매춘 현상은 인간의 삶의 환경에서 극한의 한 방편으로 여성이 주된 피해의 대상이 되어 일어난다. 이는 김유정 소설에 드러난 시대상황과 대응하는 인간의 지향성을 밝히는 주된 요인이 된다. 농촌이라는 공간에서도 매춘은 일어나고 있지만 특별히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들병이’는 30년대 우리의 농촌을 배경으로 성행했던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된다. ‘들병이’는 특별한 직종을 통해 생명을 이어갔던 하층민들의 의식과 작가의 현실인식을 읽어 낼 수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본고는 그 동안 선학자들의 논의에서 부분적으로만 논의되었던 ‘들병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김유정 소설의 특징을 재검토함으로써 ‘들병이’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들병이’에 대한 검토는 그 동안 김유정 소설의 미학적 특징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다는 점과 김유정 소설의 형성 원리를 해명하는 데 작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1) “김유정의 작품에 있어서 해학적인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그것은 자칫 하면 작품 자체를 단순화시키거나 작품의 표피적 평가에 머물 수 있는 위험을 다분히 내포하게 된다.”는 지적은 김유정의 작품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조진기, <김유정 소설과 현실수용>, 《한국현대소설연구》, 학문사, 1984. 172쪽.

## II. ‘들병이’의 형성배경과 작가의 현실인식

들병이는 농촌에서 추수기가 끝나는 무렵부터 이듬해 농사철이 시작되기까지 농촌지역을 유랑하면서 주막집에서 유숙하고 술과 몸을 파는 것을 통해 이윤을 얻어 연명하는 일군의 작부를 지칭한다.<sup>2)</sup> 김유정의 산문 『조선의 집시』는 ‘들병이’의 형성배경과 그 생활사를 김유정 자신의 시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데 주목된다. 본장에서는 『조선의 집시』를 항목화하여 김유정의 소설과 직·간접적인 대응관계를 살펴보고 ‘들병이의 철학’에 투영된 작가의 현실인식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 들병이는 극한의 빈곤에서 발생한다. 가을건이로 지주와 빚쟁이에게 진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여력만 있다면 들병이로의 혐로를 선택하지 않을 ‘처음에는 다 나쁘지 않게 성한 오작육부를 가진’ 평범한 농부들이다. 이는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결과로 오히려 빚만 더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밥’을 얻기 위해 ‘아내를 내놓고 그리고 먹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들병이의 발생 배경은 그의 소설 『가을』과 대응(전집 ; 193쪽)된다.

2.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농군의 입장에서 들병이로 나서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밥은 식성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과 그 준비에 돈 한 푼 안드다’는 데 있다. 들병이로 나서는 아내의 얼굴이 이쁘면 금상첨화이지만 ‘농촌에서 유행하는 가요나 몇 마디 반반히 가르치면’ 되고 ‘예술가적 명창’은 필요치 않고 ‘개끄는 소리라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세련되면’ 된다.

-들병이의 수련과정은 그의 소설 『아내』와 대응(전집 ; 174~175쪽)된다.

3. 시골의 술집들은 들병이를 환영한다. 아무개집에 들병이가 들었다고 소문이 퍼지면 그날 밤부터 젊은 축들은 몰려든다. 들병이를 찾아오는 핑계는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취처(娶妻) 문제와 연결된다. 극빈한 생활고 속에서

---

2) 김유정, 『조선의 집시-들병이 철학-』,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 전집》, 강, 1997. 414~421면 참조. 이하 ‘들병이’에 대한 내용은 김유정의 글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것임. 본고에서 인용하는 김유정의 작품은 모두 위의 《원본 김유정 전집》을 따랐음. 인용된 글의 표기는 가능하면 현대어 표기로 옮겼음. 이하 《원본 김유정 전집》은 (전집)으로 표기함.

결혼을 생각하기 힘든 농촌의 총각들에게 들병이는 향락의 위안자로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꿈꿔 볼 수 있는 희망의 대상으로 드러난다.

-들병이가 든 술집 풍경은 『산골 나그네』와 대응(전집 ; 20쪽)된다. 『총각과 멧꿩이』(전집 ; 31쪽). 『총각과 멧꿩이』(전집 ; 35쪽).

4. 들병이가 마을에 들면 그날 밤부터 동리의 청년들은 떼난봉이 난다. 염가로 향락을 강구하는 그들의 버릇 때문에 그렇다.

-들병이가 든 술집 풍경은 『총각과 멧꿩이』와 대응(전집 ; 34쪽)된다.

5. 들병이가 그들 생활을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남의 술을 팔고 보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막주인에게 막걸리를 뒷술로 사면 팔 때에는 잔술로 환산'하여 얻는 상술에 있다. 들병이에게 요구되는 수완력은 '끈끈한 사랑의 지속성'에 있고 이를 통해서 들병이를 찾는 젊은 총각들에게 '일정한 추파'를 던짐으로써 밤마다 일정한 손님을 유지할 수 있다.

-들병이들의 처세술은 『총각과 멧꿩이』(전집 ; 34쪽)와 대응된다.

6. 들병이들은 항상 빈농들만 상대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지주대 사랑에서 청할 때도 있는데 들병이가 힘 안들이고 큰 돈을 잡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농촌 부녀들의 희망과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들병이가 마을에 나타나면 남자뿐 아니라 아낙네까지도 수군거리며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7. 들병이의 출현은 풍기문란을 비롯하여 유희, 사기, 도난, 폭행 등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주재소로부터 추출을 명령받는 경우도 있다.

-들병이가 마을에서 추방되는 것은 『술』과 대응(전집 ; 142쪽)된다.

8. 술꾼들은 들병이를 처음 만나면 우선 남편의 유무를 묻는다. 대답은 대개 전일에는 금술이 좋았으나 생활난으로 이혼했다고 말한다. 들병이는 남편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자본이다.

-들병이의 처세술은 『총각과 멧꿩이』와 대응(전집 ; 31쪽)된다.

9. 들병이에게는 언제나 남편이 수행한다. 들병이의 남편은 대개 도박자요 불량자이다. 아내가 돈을 벌어 놓으면 압수하여 투전을 하거나 술을 먹음으로써 명색 없이 소비한다. 아내는 이에 불평이 없고 남편을 질책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남편의 권리요 아내의 직무로 안다.

-들병이 남편의 등장은 『술』과 대응(전집 ; 153쪽)된다.

10. 들병이의 어려움은 주객접대 이상으로 남편공양에 있다. 엄동설한에 태중의 몸으로 나섰다가 산기가 있을 때에는 술상 앞에서 해산하는 경우도 있다.

11. 들병이 남편은 아내가 들병이 생활 동안에 낳은 아이를 자신의 자식이라고 믿지 않는다. 다만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식이라는 점에 만족한다.

12. 들병이는 춘궁기가 돌아오면 한가롭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옛집에 칩거하면서 농민생활로 귀화하고 돌아갈 가을을 기다린다.

13. 들병이는 정당한 노동자다. 그러나 때로는 불법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증오감을 갖기보다 일종의 애교를 느낀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솔직하고 무기교라 해학미가 따르기 때문이다.

14. 들병이에게 현혹되어 절도를 범하는 남자들이 흔히 있다. 늙은 홀애비가 묘령의 들병이를 연모하여 남의 송아지를 끌어냈든가, 머슴이 주인의 벼를 퍼냈든가 하는 범행이 빈번하다.

15. 들병이의 남편은 배후에서 아내를 지휘조종하며 직접적으로 주객을 연락하여야 된다. 아내는 근육으로 남편은 지혜로, 이렇게 공동전선을 치고 생존경쟁에 임한다.

16. 들병이는 술값으로 곡물뿐만 아니라 가장십물(家藏什物)을 포함한다. 식기, 침구, 의복류 등 생활상 필수품이면 흑백을 가리지 않는다.

-들병이가 술값 대응으로 받는 내용물은 『술』과 대응(전집 ; 141쪽)된다.

17. 들병이에게 철저히 열광되면 그들 부부 틈에 끼어 같이 표박(漂泊)하는 친구도 있다. 들병이의 남편은 이 연애지상주의자의 정성을 막대하지는 않는다. 의중계 동행하며 심복같이 잔심부름이나 시켜 먹는다. 이렇게 되면 누가 본남편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자칫하면 종말에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있다.

-들병이의 남편과 정부의 삼각관계는 『술』(전집 ; 153~154쪽)과 대응된다.

위에서 항목화하여 살펴본 김유정의 산문 『조선의 집시』는 제목이 의미하는 그대로 들병이의 발생론적 배경과 그 생태에 관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산문이 의미가 중심이고 논리적이며 이지적인 문장으로서 객관적이고 토의적 성격이 강한 반면 소설은 작가에 의해 취사선택된 변형된 현실을 작가의 주관과

상상력에 의해 재구성된다<sup>3)</sup>고 할 때 ‘들병이 철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산문이 시사하는 바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조선의 집시』는 낭만적 전원적 시흥과 같은 표면적 관찰이 아니라 식민지 농촌 현실의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농민들이 발붙이고 있는 현실적 토대를 분명하게 투시하고 있다. 들병이에 대한 보고서로서 『조선의 집시』가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단순히 들병이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농촌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에 있고 당시 농민들과 들병이가 대응하는 사회적인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 있다.<sup>4)</sup>

김유정에게 있어서 조선의 유랑민으로 명명되는 ‘들병이’는 유랑하는 작부 계층이다. 들병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경에는 식민지 강점하에 조직적 수탈로 자작농에서 유랑농민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분명하게 제시된다.

김유정의 산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은 그의 단편 소설들을 통해 허구적으로 재생된다.<sup>5)</sup> 들병이의 발생 배경과 들병이 수련과정, 가족관련 문제, 들병이가 머무는 술집 풍경, 들병이 남편과의 관계, 들병이를 연모하는 남자와 남편과의 삼각관계 등의 들병이 생태는 고스란히 그의 소설에 나타난다. 들병이가 보여주는 일련의 삶의 방식은 식민지 극한에 처한 농민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작가가 당시 농민과 농촌의 핵심 문제를 인식하는 관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항목 가운데 ‘들병이’의 생활사와 관련하여 12번째 항목은 유랑작부로 떠돌던 들병이가 춘궁기가 되면 옛집에 칩거하거나 농민생활로 귀화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는 먼 지역으로 이탈할 수 있는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탈하지 못하는 당대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하층민으로 대변되는 ‘들병이’의 고향에 대한 강한 집착의식과 더불어 작가의 현실에 대한 인식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13번째 항목은 김유정이 평가하는 들병이에 대한

3) 김은철·백운복 공저, 《문학의 이해》, 새문사, 2002. 『소설론』 『수필론』 참조.

4) 박세현, 《김유정의 소설세계》, 국학자료원, 1998. 230~264쪽 참조.

5) 『산골 나그네』, 『총각과 맹꽁이』, 『술』, 『아내』, 『만무방』과 같은 작품이 그 예이다.

인식이 잘 담겨 있다. ‘들병이’가 불법행위도 하지만 정당한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들병이’를 통해 증오감을 갖는 대신 일종의 애교를 느끼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생활방식이 너무도 단순하고 솔직하면서 무기교로서의 해학미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조선의 집시』에서 보여주는 ‘들병이’에 대한 김유정의 관점은 그의 단편소설들을 통해 궁핍한 현실 속에서 생을 이어가는 살아 있는 민초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당대 민초들에 대한 작가의 수평적 이해는 들병이를 비롯한 하층민들의 생활사에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내포한다. 특히 들병이가 보여주는 ‘방랑’과 ‘귀환’의 수레바퀴적 생활사는 식민지의 현실에서 ‘이탈’과 ‘귀환’을 체험한 작가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당대 현실을 조망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의 집시』에 나타난 ‘들병이’의 생활사는 모두 소설화 된 것은 아니다. 이는 김유정 말년에 겪게 되는 병마와 가난, 그로 인해 요절한 배경에서 작품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Ⅲ. 궁핍의 극한과 해학적 승화

김유정 소설 가운데서 ‘들병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작품은 『총각과 맹꽂이』, 『술』, 『아내』를 들 수 있다. ‘들병이’는 농한기에 농사꾼을 대상으로 술장사를 함으로써 연명할 수밖에 없는 절대 빈곤의 농촌 사회를 반영하는 인물임은 위에서 살펴보았다. 이들 ‘들병이’들은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행해진 그 이상으로 ‘몸’을 팔고 ‘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의 가장 밑바닥에 처한 상황임은 물론이다.

매매계약서

일금 오십원야라

우금은 내 아내의 대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갑술년 시월 이십일

조 복 만

황 거 풍 전6)

장을 보고 오는 농군을 농군이 죽였다. 그것도 많이나 되었으면 모르되 빼앗은 것이 한껏 동진 네 닢에 수수 일곱 되, 게다가 흔적이 탄로날까 하여 낮으로 그 얼굴의 껍질을 벗기고 조기 대강이 이기듯 끄적하게 남기고 조진 망나니다. 흉악한 자식. 그 알량한 돈사 전에 나 같으면 가여워 덧돈을 주고라도 왔으리라.<sup>7)</sup>

위에서 인용된 『가을』은 주인공 <복만>이가 자신의 아내를 소장수 황거풍에게 팔아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이야기에 나타나는 매매계약서이다. 말 그대로 남편의 주도하에 행해진 인신매매계약서이다.

인용된 『만무방』은 농촌의 어느 가을 밤 산중에서 낮으로 사람을 찢어 죽인 강도의 행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당시의 식민지 극한의 궁핍화된 생활 속에서 하층민들이 대응하게 되는 삶의 현장의 실상을 그대로 제시한다.<sup>8)</sup>

김유정 소설에서 ‘들병이’로 나서는 인물들이 성적 쾌락에 집착하는 경우는 없다. 한결같이 그들 남편들의 허락하에 행해짐은 물론이고 남편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이루어진다. 한편에선 들병이 신체를 부러워하거나<sup>9)</sup> 실제로 들병이로 나서는 경우도 당시의 현실임을 잘 보여준다. ‘들병이’로 나서는 행위 자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터부시되는 일상적인 생활의 반경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특수한 상황임을 잘 보여준다.

‘들병이’들이 들병이 유량을 통해 받는 ‘돈’의 대응품들도 다양하다. 술값 대신 받게 되는 대응품들은 함지박, 맷돌, 숯, 바구니, 밥사발, 바가지, 바구니, 종지, 옷가지 등을 비롯해 쌀 몇 되, 좁쌀 몇 되 등 곡물류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활필수품에 해당된다. 심지어 ‘들병이’로 위장 결혼을 하고 도주를 하면서 속옷가지 등을 챙겨 가는 상황은 들병이의 생활상은 물론이거니와 들병이를

6) 김유정, 『가을』(전집), 194~195쪽.

7) 김유정, 『만무방』(전집), 111쪽.

8) 김유정에 대한 최근까지의 논의는 ‘식민지 조선의 절대 궁핍화된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한다.’는 데 합의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9) II-6번째 항목 참조.

찾는 소작인들의 생활상을 짐작케 한다.

‘들병이’가 어떤 마을에 출현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하지만, 주막주인과 들병이 그리고 들병이를 통해 성적 쾌락 및 취처를 기대하는 농민들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훤히 들여다보는 관계에 있다.<sup>10)</sup> 이는 당대 현실을 대응해 가는 주체들로서 서로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들병이’가 술과 몸을 파는 것으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의 주체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김유정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언급되어 온 해학성은 당대 현실을 농민이 처한 입장에서 바라본 작가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선학자들의 연구에서 김유정의 해학성은 “당대의 사회적 부조리와 고통을 사실주의적으로 통찰하면서 그것의 언어적 표현은 비사실주의적 기법으로 성과를 이룸으로써 우선 전통적 정서와 현대적 상황인식간의 교묘한 조화”<sup>11)</sup>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과, “소작인·유랑농민·머슴·노동자·실업자·결인 등의 생활상을 통하여 당시 한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한 민중 계층의 삶의 진실을 표현하려 하였고, 또 그들의 어려운 삶을 해학적으로 표현함에 있어 우리의 전통과 민중문학의 하나인 판소리 사설이나 고전 소설의 표현 방법을 자연스럽게 수용”<sup>12)</sup>하는 가운데 해학성이 형성되었다는 지적은 온당해 보인다.

김유정의 소설의 특징에 대하여 거론될 때 일반적으로 김유정 특유의 해학성이 강조되고 회화적 요인들이 유정 문체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지만,<sup>13)</sup> 김유정 소설을 김유정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은 작가가 인식하는 식민지 농촌 현

10) II-3번째 항목 참조.

11) 김병익, <땀을 잃어버린 시대의 언어>, 전신재 편,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143쪽.

12) 이선영, <민중문학과 자기 인식>, 전신재 편, 앞의 책, 62쪽.

13) 이주일, <김유정론>, 《한국현대작가연구》, 국학자료원, 2002. 325~391쪽 참조.

실의 극단의 궁핍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극단의 궁핍화에 대한 하층민들의 대처 방식은 '몸'을 스스로 벌거벗는 형태로 나타난다. 벌거숭이로 '밥'을 찾는 과정은 있는 것에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도 더해도 더할 것이 없는 무력한 삶의 연속이다. 김유정 소설의 해학성은 하층민의 생활상이 단순하게 언어적 유희와 작가의 손재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극한의 밑바닥에서 '몸'을 버리고 '밥'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민초들의 자화상과 다르지 않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해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의 생동미가 습자되어 현상되는 가운데 드러나는 해학성이다. 극한의 궁핍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들병이'로의 결행은 오히려 그들 하층민들에겐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강원두 춘천군 신면 중리 아랫말에 사는 김덕만입니다. 올라버지가 성이 광산 김갑니다.”

두 손을 자꾸 비비더니,

“어머니허구 단 두 식겁니다. 하치 못한 사람을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서른넷인데두 총각입니다.”

“?”

계집은 영문을 몰라 어안이 병병하다가,

“고만이올시다.”

하며 이마를 기울여 절하는 것을 볼 때 참았던 고개가 절로 돌았다. 그리고 터지려는 웃음을 깨물다 재채기가 터져버렸다.

“일테면 인사로군? 뭘 고만이야, 더 허지.”

여기저기서 키키거린다. 그런 인사는 좀 똥다 하자구 핀잔이 들어온다. 모처럼 한 인사가 실패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서 고개를 숙인 채 부처가 되었다.<sup>14)</sup>

위의 『총각과 멧똥이』는 열심히 농사만 해 오던 총각 덕만이가 멧똥이 같은 생각과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웃음을 자연스럽게 자아낸다. 들병이와 결혼할 수 있다는 그 허황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머리 없는 행동을 하다

14) 김유정, 『총각과 멧똥이』(전집), 35쪽.

가 동료들로부터 무안만 당하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왜 남의 술을 빼가는 거야, 이 도둑년아!”

하고 연해 발악을 친다.

그렇지마는 들병이 두 내외는 금세 귀가 먹었는지 하나는 짐을, 하나는 아이를 둘러 엮은 채 언덕으로 유유히 내려가며 한 번 돌아다보는 법도 없다.

아내는 분에 복받치어 고만 눈 위에 떨썌 주저앉으며 체면 모르고 울음을 놓는다.

근식은 구경꾼 쪽으로 시선을 흘깃거리며 쓴 입맛만 다실 따름……중국에는 두 손으로 눈 위의 아내를 잡아 일으키며 거반 울상이 되었다.

“아니야 글썄, 우리 것이 아니라니깐 그러네 참!”<sup>15)</sup>

『술』의 주인공 근식은 들병이의 꾀임에 속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마저 버리면서도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찾아 나서는 데 급급하다가 중국에 실패로 귀결되는 인물이다. 근식은 생활 필수품인 맷돌·함지박·술까지 아내 몰래 들병이 계속에게 주었지만 결국 자신의 어리석고 부도덕한 모습만 아내와 동리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웃음을 유발케 만든다.

김유정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회화적 또는 골계적으로 이루어진 선한 ‘바보열전’<sup>16)</sup>이라는 지적처럼 단순하고 무식하고 우직한 바보들의 전형으로 드러난다. 이들 바보들의 전형은 식민지 현실의 피폐화된 극지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민초들의 일그러진 자화상과 다르지 않다. 유정의 단편 소설 대부분의 결말 부분에 나타나는 해학성은 식민지 농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인공의 무지와 우매함과 연결되면서 30년대 농촌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극적 상황을 통해 안타까움과 서글픈 마음이 조성되지만 현실적 상황을 수용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

김유정은 그의 작품에 설정된 바보스럽고 무지한 주인공을 통해 당대 현실에 직면한 민초들의 삶의 목소리를 그의 탁월한 언어감각으로 소설화하는 데

15) 김유정, 『술』(전집) 155쪽.

16) 이재선, <회화적 감각과 바보열전>, 전신재 편, 앞의 책, 99쪽.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소설 언어는 강원도 깊은 산골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원시언어가 하층민들이 처한 현실에 동화되고, 강원도 특유의 토속적 정서를 담보함으로써 해학성으로 승화된다. 농촌의 궁핍화에서 야기된 극한 가난의 문제는 작가의 현실인식을 통해 해학과 유머를 자연스럽게 불려 일으킴으로써 작품의 인물들이 극한의 절망감으로 좌초되지 않고 웃음으로 승화되는 문학성을 보여준다.

#### IV. 작가의 현실대응과 ‘들병이’의 위상

김유정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언급되어 온 ‘해학성’과 ‘유머’는 30년대를 인식하는 작가의 현실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가운데서 김유정 문학의 한 흐름을 이루고 있는 ‘들병이’에 대한 위상도 검토될 수 있다.

“작가의 현실 인식이나 세계관은 그의 미학의 차원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sup>17)</sup>이라고 할 때 김유정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비롯한 인물들은 작가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직접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김유정이 직면한 농촌 현실은 극한의 일본의 식민지 농업정책에서 궁핍화되는 상황에 맞물려 있고 그의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에 대한 이해와 일체감의 반영으로 이해된다.

김유정이 당대 궁핍상을 통한 “보편적 체험”<sup>18)</sup>은 가장 근원적인 자리에 생명의 본질이 있고 그 본질에 대한 접근과 소설화 과정이 유정 소설의 문학성과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보편적 체험은 김유정 문학성의 핵심을 이루는 작품들의 배경이 농촌현실과 관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작가의 현실 인식과 같은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유정 소설에서 삶의 지향성은 “‘인간답게’사는 일이 아니다. 그냥 ‘살아갈 것만’이 문제”<sup>19)</sup>인 상황이다. 성적 윤리와 성적 도덕이 문제제되기 이전에 근

17) 이선영, <민중문학과 자기 인식>, 앞의 글, 62쪽.

18) 김상태, <김유정과 해학의 미학>, 전신재 편, 앞의 책 114쪽.

19) 한용환, <김유정론의 반성>, 전신재 편, 앞의 책, 205쪽.

원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극한의 생존방식과 연계된다. ‘들병이’들이 보여주는 성에 대한 윤리와 도덕의 부재 현상은 지탄의 대상으로 주목되기에 앞서 극한의 궁핍화된 일제의 식민체제 아래에서 삶을 이어간 민초들의 생명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김유정이 자신의 소설의 중심 소재로 선택한 다수의 빈민층은 당대현실을 인식하는 작가의 현실 대응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생생한 현실반영에 가깝다.<sup>20)</sup>

30년대 우리의 농촌현실의 궁핍화된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들병이’는 ‘남은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 땀<sup>21)</sup>밖에 없는 출구이면서 ‘하루를 살아도 제 계집이런만 근 십 년이나 소같이 부려먹던 이 아내<sup>22)</sup>를 다른 남자에게 매매할 수밖에 없는 삶의 지향성을 잃어버린 상황이고 ‘땀지는 농사보다는 이밖에, 고기에, 옷 마음대로 입고 좀 호강<sup>23)</sup>을 단순무지로 대처함으로써 ‘아내를 내놓고 그리고 먹는 것<sup>24)</sup>을 선택한 삶의 주체들이다. 들병이로의 과정은 소작인, 광부 머슴 등으로 감내할 수 없는 당대 현실 속에서 민초들의 피폐화 되어 가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김유정 소설의 주요 인물형인 소작빈농자, 머슴, 광부, 매춘부, 건달 등과 함께 ‘들병이’는 빈곤의 탈출처로 농촌에서의 이탈을 꿈꾸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탈에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농촌을 배경으로 삶의 터전을 지속한다.<sup>25)</sup> 이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단히 집착하면서 생명을 이어간다. 심지어 들병이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유랑하면서 생활 양식을 구하면서도 일정시기가 끝나면 자

20) 윤지관은 리얼리즘과 관련한 논의에서 “우리가 김유정의 성취에 눈길을 돌려야 하는 까닭은 부정적 인물이나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인물이나 아니냐가 리얼리즘의 관건이 된다. 우매하나마 인간적 욕망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 추하게 보이나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한 그러한 인물의 창조는, 무엇보다 살아 있는 현실에 대한 충실하다는 점에서 리얼리즘의 본질에 가깝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지관, <민중의 삶과 시적 리얼리즘>, 전신재 편, 앞의 책, 219-220쪽.

21) 김유정, 『만무방』(전집), 102쪽.

22) 김유정, 『가을』(전집), 196쪽.

23) 김유정, 『아내』(전집), 174쪽.

24) 김유정, 『들병이의 철학-조선의 집시』(전집), 414~415쪽.

25) 이들 가운데 야반도주하여 도망오거나 도망가는 소작인들(하층민)도 있지만 그들이 머무는 곳은 궁핍한 당대 현실이 직면해 있을 뿐이다.

신의 고향으로 귀환한다.<sup>26)</sup> 자신이 터잡고 살던 고향을 떠날 수 없던 상황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살아 갈 방도가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일관되게 궁핍화된 농촌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통해 작가의 현실인식에 대한 관점이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유랑작부로 지칭되는 ‘들병이’를 통해 작가는 집시처럼 자유를 꿈꾸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폐쇄된 사회상을 보여준다. 또한 출구가 없는 농촌현실은 이를 직시하는 작가의 세계관을 통해 그의 소설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진다.<sup>27)</sup>

일찍이 김문집이 “애기 짓빠는 본능으로 소설을 쓴”<sup>28)</sup> 작가로 김유정을 평한 것은 김유정의 현실인식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때의 본능과 직결되는 김유정 소설의 특징을 솔직성과 관계된다고 할 때, 유정이 인식한 궁핍한 당대 현실은 살아 있는 숨결로 작품화 됨으로써 당대 현실의 전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들병이’가 ‘뭍’을 돈과 맞바꾸는 교환의 방식은 생명을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밥’을 찾는 과정이며, ‘밥’에 밀착된 농촌현실을 김유정은 살아 있는 육성의 언어로 표현했다고 하겠다. 김유정의 소설에 나타난 ‘들병이’는 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궁핍화된 현실의 말석에서 끈질기게 생명에 집착했던 대표적인 유형이며, ‘들병이’를 통한 작가의 현실인식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음으로써 소설의 형성 원리를 이루는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김유정의 소설에 나타난 들병이의 형성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들병이의 생활사와 관련, 작가의 현실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식민지 궁핍의 극한 상황을 그의 작품에서 해학적으로 승화되고, 작품을 통해 검토되는 들병이의 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 II-12번째 항목 참조.

27) II-13번째 항목 참조.

28) 김문집, <김유정의 예술과 그의 인격비밀>, 《김유정전집》, 현대문학사, 1968. 443쪽.

먼저 들병이는 30년대 우리의 농촌을 배경으로 성행했던 하나의 현상으로, 들병이라는 특별한 직종을 통해 생명을 이어 갔던 하층민들의 의식과 작가의 현실인식을 읽어낼 수 있었다. 들병이들의 생활사와 관련하여 『조선의 집시』는 낭만적 전원적 시흥과 같은 작가의 표면적 관찰이 아니라 식민지 농촌 현실의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농민들이 발붙여 살고 있는 현실적 토대를 작가의 관점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들병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경은 식민지 강점 하에 일제에 의한 조직적 수탈로 작농에서 유랑농민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들병이들은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행해진 그 이상으로 ‘몸’을 팔고 ‘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의 가장 밑바닥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김유정 소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언급되는 해학성은 유정 문체의 핵심 사항이다. 농촌의 궁핍화에서 야기된 가난의 문제는 작가의 현실인식을 통해 해학과 유머를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작품의 인물들이 극한의 절망감으로 좌초하지 않고 웃음으로 승화되는 문학성을 보여준다. 김유정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비롯한 인물들은 작가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직접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처럼 인식되어 작품에 나타난다. 김유정이 당대 궁핍상을 통한 생명에 대한 인식은 생명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며 이는 그의 작품들 속에서 ‘들병이’를 통해 그 일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들병이는 대표적인 유랑민이면서도 농촌환경을 떠날 수 없는 인물이다. 또 작가의 눈을 통해 정당한 노동자로 인식되면서 작품화되는 관점을 제공한다. 들병이와 들병이를 맞아들이는 주막주인, 들병이를 통해 향락 및 취치를 기대하는 농민들은 당시 농촌현실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로 이해된다. 들병이들의 생활사는 김유정이 인식하는 현실인식의 방식들과 상당부분 연결됨으로써 소설화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들은 ‘들병이’가 김유정의 소설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그 위상을 검토하는 데 유용하다.

‘들병이’들은 떠날 수 있는 공간은 열려 있는데, 떠나지 못하는 상황 설정은 김유정의 작가인식을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김유정은 도시생활도 했고 그 일부를 작품화했지만, 그 주요 인물들이 한결같이 어리석은 인물형이고 가난한 자들로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쉽게 떠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들병이와 주막주인, 농민들과 형성되는 공동체의 주체로서의 삶에 대한 김유정의 인식은 그의 소설의 특징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들병이가 '몸'과 '돈'을 맞바꾸는 교환의 방식은 생명을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밥'을 찾는 과정이며, '밥'에 밀착된 농촌현실을 김유정은 살아 있는 육성의 언어로 소설화했다고 하겠다.

들병이는 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궁핍화된 현실의 말석에서 끈질기게 생명에 집착했던 대표적인 유형이다. 들병이의 생활사는 작가의 현실인식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음으로써 유정 소설의 형성 원리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고, 들병이에 대한 위상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주제어** : Deul-Byoung-E(들병이) ; a bottled wine women peddler, Kim, Yu-Jeong(김유정), Humor(유머), Poverty(궁핍)

## 참고 문헌

- 김상태, <김유정과 해학의 미학>, 전광용 외, 《한국현대소설사연구》, 민음사, 1984 ; 전신재 편,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 김문집, <김유정의 예술과 그의 인격비밀>, 《김유정 전집》, 현대문학사, 1968.
- 김병익, <땅을 잃어버린 시대의 언어-김유정의 문학사적 위치>, 《문학사상》 1974. 7. ; 전신재 편, 《김유정 문학의 전통성과 근대성》,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 김영기, 《김유정 그 문학과 생애》, 지문사, 1992.
- 김유정, <조선의 집시-들병이 철학>,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 전집》, 강, 1997.
- 김윤식, <들병이 사상과 알몸의 시학-김유정문학의 문학사적인 한 고찰>, 《김유정문학의 재조명》,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제9회 학술연구발표회

